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고관절
논문제목	광범위 대퇴 근위부 골 결손 환자에서의 대퇴 근위 구조적 동종골 이식을 통한 대퇴 근위부 재건술				
영문제목	Proximal Femoral Structural Allografts for Reconstruction of the Proximal Femur in Severe Femoral Bone Loss				
발 표 자	이상훈	책임저자	전영수		
저 자	전영수 ^{1,2} , 유기형 ^{1,2} , 조윤제 ^{1,3} , 이상훈 ^{1,2} , 오현섭 ^{1,2} , 이승혁 ^{1,2} , 김강일 ^{1,2} , 유명철 ^{1,2}				
기 관 명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¹ ,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² , 경희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³				

서론 : 고관절 전치환술 및 근위대퇴골 종양 제거술 이후 대퇴 근위부의 광범위한 골 결손이 있을 경우, 재치환술 혹은 근위부 재건술 시에 구조적 안정성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대퇴근위부 골 결손 환자에게 대퇴 근위 구조적 동종골 이식을 사용한 재치환술 및 재건술을 시행한례들을 추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 고관절 전치환술 및 근위대퇴골 종양 제거술 이후 대퇴 근위부의 광범위한 골 결손이 있을 경우, 재치환술 혹은 근위부 재건술 시에 구조적 안정성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대퇴근위부 골 결손 환자에게 대퇴 근위 구조적 동종골 이식을 사용한 재치환술 및 재건술을 시행한례들을 추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 방사선학적으로 전례에서 골 유합의 소견을 보였으며 골 유합은 평균 13개월에 이루어졌다. 추시상 이식골의 골 흡수가 2례, 숙주골 골 흡수가 2례였으며, 각각 이식골의 광범위 골 흡수가 관찰된 2례에서 재치환술, 숙주골 골 흡수가 관찰된 1례에서 피질 골판 추가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1례는 추시 관찰 중이다. 임상적으로 Harris hip score는 술전 평균 55점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 78점으로 향상되었으며, VAS score는 술전 6.7점에서 최종 추시시 3.8점으로 변화하였다. 술 후 합병증으로 대퇴골 대전자부의 견열 1례, 수술 부위 감염 3례 등이 있었다.

결론 : 고관절 전치환술 및 근위대퇴골 종양 제거술 후에 발생하는 광범위한 대퇴 근위부 골 결손 시에 대퇴 근위 구조적 동종골 이식을 사용하여 우수한 골 유합을 얻었으며 기계적 안정성 역시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식골의 골 흡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시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대퇴 근위 동종골 이식을 사용한 재치환술 및 재건술은 대퇴 근위부 골결손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법중의 하나로 생각되며 고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ment :

severe femoral bone loss, proximal femoral structural allografts